

부산연극사

1908⇒2008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연극사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

부산연극사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

2008년 11월 15일 인쇄

2008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 김동석

주관 고인범 심상교

발행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01-0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31

전화 : 051)645-3759

펴낸곳 도서출판 해성

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0번지 성동빌딩 3층

출판등록 1989년 4월 6일 제카1-117호

전화 : 051)441-0485 전송 : 051)465-0485

<http://book0485.com> / e-mail: book0485@chollian.net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2008 printed in Busan Korea
ISBN 89-7921-115-5

※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 이 책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

김동석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물론, 훨씬 오래 전부터 연극은 존재하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연극이 살아 숨 쉬는 지가 어땠는지 그리 되었다.

그동안 본 협회는 부산의 연극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부산연극사 자료집』(2006. 9)과 『부산연극계 25년사』(2007. 12)를 발행했다. 이어 올해는 2008년 <한국연극 10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행사와 더불어 해방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3년간의 부산을 중심으로 한 연극사의 흐름을 정리하여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을 발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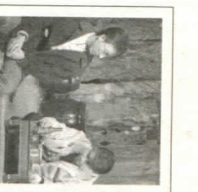
본 책자를 발간하는 동안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던 사료들을 복원하려는 과정 속에 보람을 느꼈고, 부산연극이 태동하던 시대를 더듬으며 현재에는 잊혀져 있던 역사의 편린(片鱗)들을 찾을 수 있어 감사했다.

살아있는 연극은 사회의 분명한 변화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지난 60여 년간에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미학적 이상에 대한 무수한 도전은 희곡적 표현과 연극제작에도 변화를 초래해 왔을 것이다. 본 책자는 그 변화의 궤적을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극단의 수는 19개, 비 소속 극단까지 포함하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의 수는 40여개 남짓 될 것이라 여겨진다. 역사라는 것이 탄생과 사라짐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진행되어 온 사실증빙에 대한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또한, 그것을 지켜봐주는 객관적인 시선이 앞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과제임에 아까가 무거워진다.

현재. 오늘날이란 뜻의 present에는 선물이란 뜻도 들어있다고 누군가 그랬다.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질 소중한 선물. 이는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100년사의 과거가 현재의 거름이 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과거의 100년을 되짚는 지금의 현재 역시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연극인의 한 사람으로서 10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본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김문홍 선생님과 허은선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발간사 /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

김동석 10

제1부

혼란과 탐색의 시대

(1945 ~ 1972년)

허은

I. 개관

16

II. 해방이후 (1945 ~ 1949)

19

III. 전쟁의 와중에서 (1950 ~ 1960)

26

IV. 1960년대의 부산연극

31



제2부

도약, 중흥, 그리고 르네상스

(1973 ~ 2008년)

김문홍

I. 연극적 역량의 축적기 (1973 ~ 1979)

42

II. 부산연극의 중흥기 (1980 ~ 1989)

76

III. 부산연극의 르네상스 (1990 ~ 1999)

124

IV. 통속성과 예술성의 딜레마 (2000 ~ 2008년)

188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물론, 훨씬 오래 전부터 연극은 존재하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연극이 살아 숨 쉰 지가 어느덧 그리 되었다.

살아있는 연극은 사회의 분명한 변화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지난 60여 년간에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미학적 이상에 대한 무수한 도전은 희곡적 표현과 연극제작에도 변화를 초래해 왔을 것이다.

현재. 오늘날이란 뜻의 present에는 선물이란 뜻도 들어있다고 누군가 그랬다.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이는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100년사의 과거가 현재의 거름이 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과거의 100년을 되짚는 지금의 현재 역시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www.bstheater.or.kr

값 10,000원

